



5.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윤리 사상

(1) 현실주의

-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이 세상은 수많은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라고 주장함
-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고, 선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2) 목적론적 세계관

-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善, the good)을 목적으로 추구함
-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最高善)은 행복임
- 행복이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임 →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덕을 갖추어야 함 소·폴·아 공동점

(3) 덕론

- 덕: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 덕의 두 가지 유형 9월·수능에 무조건 출제!

유형	지성적 덕(지적인 덕)	품성적 덕(도덕적 덕)
특징	-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임 - 주로 교육을 통해 얻어지고 길러짐 - 세계에 대한 관조를 가능하게 함	-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임 -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됨 -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게 함
구체적인 예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등	용기, 절제, 금지 등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 덕론 용어를 선지에서 마구 섞어버림!

-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능력이다.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것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지성적 덕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교육에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품성적 덕은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본성과 다르게 습관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돌은 본성적으로 아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에 위로 움직이도록 습관을 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품성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품성적 덕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주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며 인간의 행위 역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이란 덕과 일치하는 영혼(정신)의 활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구분하고 전자와 관련한 덕을 지성적 덕, 후자와 관련한 덕을 품성적 덕이라고 불렀다. 또한 그는 이성적인 부분을 다시 학문적 인식의 부분과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부분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에 해당하는 덕을 철학적(이론적) 지혜, 후자에 해당하는 덕을 실천적 지혜라고 불렀는데,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분별하는 역할을 한다.

(4) 중용과 실천적 지혜

- 중용
 -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 →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상태임
 -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예) 질투, 절도)에는 중용이 없음

◆ 목적론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론

◆ 최고선

인간 행위의 최고 목적과 이상이 되며 행위의 근본 기준이 되는 선

◆ 중용

영역	부족	중용	과도
두려움과 태연함	비겁	용기	무모
쾌락과 고통	무감각	절제	방탕
보통 규모의 재물	인색	후덕	낭비

개념 Check

- 아리스토텔레스는 ()을/를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았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란 ()와/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을 의미한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성적 덕과 ()적 덕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1. 행복

2. 덕

3. 품성



- ② 실천적 지혜: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지성적 덕 →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임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론

- 어떤 이에게 10므나*의 음식물은 먹기에 많고 2므나의 음식물은 적다고 해서, 운동 코치가 모든 사람에게 6므나의 음식물을 먹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6므나의 음식물은 노련한 운동선수에게는 적겠지만 운동을 막 시작한 초보자에게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동에 관계하고, 이 감정과 행동 속에 과도와 부족 및 중용이 있다. 예를 들어 두려움과 태연함, 또 욕욕이나 분노 및 연민, 일반적으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일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할 수 있는데, 양쪽 모두 잘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이것들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 마땅한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중용이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 모든 행위와 모든 감정에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나 감정은 이미 나쁜 의미를 갖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심술, 파렴치, 질투와 같은 감정 그리고 간통, 절도, 살인과 같은 행동의 경우가 그러하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 *므나(mna): 고대 그리스의 무게와 화폐의 단위, 무게 단위로는 약 430그램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은 이성에 의해 충동, 감정들을 억제함으로써 어떤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습관화한 덕이다. 이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이나, 단순한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상태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중용은 모든 행위와 감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무조건 나쁜 감정과 행위도 있기 때문이다.

◆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또는 이론적 지혜)는 신이나 자연과 같이 고귀한 대상들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활동의 덕이라면, 실천적 지혜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덕으로 숙고, 즉 이성적 헤아림의 대상이 되는 것에 관여함

◆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달리 얹이 반드시 덕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왜냐하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얹이 덕행으로 나타나도록 의지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함

(5) 덕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 ① 지성적 덕을 갖추려면 오랜 시간 동안 이론적 탐구에 매진해야 함
- ② 품성적 덕을 갖추려면 중용의 실천을 습관화해야 하며, 실천 의지를 길러야 함
- ③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해야 함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덕함에 이르는 방법

- 어떤 행동이 정의롭고 절제된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이 정의롭고 절제 있는 사람이 했을 만한 행동일 때이다. 그런데 단순히 정의롭고 절제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정의롭고 절제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정의롭고 절제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정의롭고 절제 있는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자이다.
- 자신이 해야 하는 행동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제하지 못하게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행동을 아는 자라면 자제하지 못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듯이 말이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자제하지 못함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유덕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유덕한 사람의 행동을 본받아 덕행을 직접 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성 작용 없는 기계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의 지휘에 따라 덕행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얹과 행위 사이에는 '자제하지 못함'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얹을 가지고 있으나 육체적 욕구 때문에 그 얹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얹이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의지의 힘을 강하게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념 Check

1.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은/는 단순한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 의한 가장 적합하고 타당하며 옳은 상태이다.
2. () 지혜란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지성적 덕이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를 비판하면서 얹이 덕행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을/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답 1. 중용
2. 실천적
3. 의지